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타당성 검증

강형길¹

¹경남대학교 교수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Adolescent Playfulness Questionnaire

Kang, Hyoung-Kil¹

¹Ky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adolescent playfulness questionnaire. For the purpose 1886 adolesc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measuring playfulness, openness, and extroversion. After omitting 77 irregular responses, 1809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al analysis, and validity examinations. Afte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5 factors 20 items of Korean version of adolescent playfulness items changed to 4 factors 17 items. Aft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 factors 17 items of Korean version of adolescent playfulness items changed to 4 factors 15 items. The 4 factors 15 items of Korean version of adolescent playfulness items were validated for content validity, criterion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adolescent, and in the discussion section. practical and conceptual implications are provided.

Key words : playfulness, extroversion, openness, adolescents, questionnaires

주요어 : 놀이성, 외향성, 개방성, 청소년, 질문지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20448)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ang, Hyoung-Kil

E-mail: hkilkang@kyungnam.ac.kr

Received: February, 10, 2021 Revised: March, 11, 2021 Accepted: March, 22, 20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놀이는 재미와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activity)으로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특성이 있다(Csikszentmihalyi, 1990). 일(work)과 여가활동(leisure activity)을 구분 짓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결과와 과정 중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는가에 있으며, 과정을 중시하는 놀이는 여가활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아가 놀이는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와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이훈, 조희범, 이영진, 2010), 여가활동은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에 놀이적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학에서 놀이는 하나의 주요한 연구 영역으로 간주했다.

연구사적으로 놀이연구는 놀이와 관련된 동기 연구 그리고 놀이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이순행, 이희연, 정미라, 2018). 놀이의 동기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잉여 에너지설, 오락설, 반복이론과 같은 초기 놀이 이론들이 정립되었다. 이후, 놀이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요 흐름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관찰연구를 통해 놀이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자들의 이해가 깊어졌다. 하지만 개인의 특질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지되는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놀이를 하게 만드는 개인의 내재적 특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Millar, 1974), 이후 놀이성(Playfulness)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ozionelos & Bozionelos(1999)는 놀이성은 자신의 환경을 대하는 내적 차원의 내재적 성향(internal disposition)이라고 했으며, Lieberman(1977)은 놀이 상태에서의 개인의 주관적 경험 또는 놀이에 개인을 동기화시키는 특질적 기전을 ‘놀이성(playfulness)’이라고 말했다. 즉, 놀이성은 개인적 특질(personal

trait)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 선택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여가 행동 선택은 놀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의 놀이성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행하여 졌으며, 소수의 놀이성 연구만이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는 성인과 청소년의 놀이성을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부재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이에 최근 이순행, 이희연, 정미라(2018)는 한국판 성인 놀이성척도(K-APTS)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수인, 안현의(2019) 또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판 성인용 놀이성 척도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판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는 문헌 연구 결과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는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외 연구들에 의하면, 성인들은 모험적, 충동적, 자발적 놀이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Barnett, 2007; Glynn & Webster, 1992, 1993), 아이들은 동적, 쾌활, 충동적 놀이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Barnett, 1991). 성인과 아이의 놀이성을 비교하면, 충동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은 놀이성을 쉽게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 빈번히 노출되는 반면, 성인은 비 놀이적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며, 이를 통해 성인과 아이 간의 놀이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사회적 의무와 역할은 놀이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훈, 2009). 또한, 이훈, 조희범, 이영진(2010)은 외향성, 창의성, 즉흥성이 국내 성인의 주요한 놀이성 구성요소로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국외의 성인 놀이성의 구성요소인 모험적, 충동적, 자발적 놀이성(Glynn & Webster, 1992, 1993; Barnett, 2007)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즉 놀이성이 연령과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문화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타당도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Staempfli(2007)가 개발한 청소년 놀이성 척도 문항이 국내 청소년의 놀이성을 적절히 측정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Staempfli(2007)는 신체적 적극성(Physical Animation, 4문항), 사회적 참여(Social Engagement, 4문항), 정신적 자발성(Mental Spontaneity, 4문항), 정서적 유동성(Emotional Fluidity, 4문항), 유머관점(Humorous Perspective, 4문항)의 5개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놀이성 척도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하였으며,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원척도의 구인이 국내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어판 청소년 놀이성 척도 문항과 개방성 및 외향성 문항 간의 관련성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과 성인의 놀이성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같은 개인의 성격 특질과 상호관련성을 맺으며, 일상의 생활양식에서 발현된다고 한다(Solnit, 1998). 예를 들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여가시간에 자극적인 활동을 선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즐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놀이에 참여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nett, 2007). 국내 연구에 있어 김경은(2014)은 예비교사의 성격특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놀이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신경증은 놀이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지현, 이진숙(2015)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이 높은 어머니는 놀이성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판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하위요인과 개방성, 외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Staempfli(2007)가 개발한 청소년 놀이성 척도 문항(20문항)을 번안하고, 문항 분석을 할 것이며,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및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판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하위요인과 개방성, 외향성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편의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부산, 경남, 대구 지역 중학생 188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77부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0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참여자 15세 188명, 14세 1072명, 13세 626명이었으며, 여학생 904명, 남학생 905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참가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 설문참가자 특성

특성	빈도	M	SD
나이	13살 (n=626)	13.77	.62
	14살 (n=1072)		
	15살 (n=188)		
성	남 (n=905)		
	여 (n=904)		
키		163.6	7.88
몸무게		56.18	12.60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은 놀이성(20문항, 리커드 5점 척도), 개방성(5문항, 리커드 5점 척도), 외향성(5문항, 리커드 5점 척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설문지는 IRB의 승인절차를 거쳤다.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taempfli(2007)가 개발한 척도(20문항)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역, 재번역 과정을 미국 박사

학위를 마친 커뮤니케이션 및 여가사회심리학 전공 교수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번역된 내용은 Vallerand(1989)의 타 문화 질문지 번안 과정 및 International Test Commission (2010)의 번안 과정에 따라 원척도와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반복적인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척도의 개념 확인, 문항 및 요인 검토, 내용 및 동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통한 외적준거검토 단계를 거쳤다. 개방성(5문항)과 외향성 문항(5 문항)은 김지영(2011)이 Lounsbury et al. (2003)에 의하여 개발된 문항을 기반으로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신체적 적극 4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3.12에서 3.75로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편차 값은 .95에서 1.18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 4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3.63에서 4.07로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편차 값은 .90에서 1.00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자발성 4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3.34에서 3.60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편차 값은 .97에서 1.10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유동성 4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3.50에서 3.92로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편차 값은 .89에서 1.05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머 관점 4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3.17에서 3.66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편차 값은 1.01에서 1.11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안된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문항의 왜도와 첨도는 ± 2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 분포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Crocker & Algina, 1986). 번안된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문항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III. 결과

1. 문항 분석

번안된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문항이 양호한 지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2. 번안된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문항의 기술분석 결과

하위요인	문항	M	SD	Skew	Kurt
신체적 적극	나는 친구들과 과격한 육체적 놀이 하기를 좋아한다.	3.12	1.18	-.058	-.784
	나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3.75	1.06	-.700	-.042
	나는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3.55	1.11	-.420	-.438
사회적 참여	나는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에 동기부여 되고 자극받는다.	3.32	1.11	-.192	-.505
	잘 노는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다.	3.74	.95	-.597	.273
	나는 사람들과 놀고 장난치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4.07	.90	-.862	.615
정신적 자발성	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한다.	3.69	1.00	-.464	-.176
	나는 딴 사람들에게 농담하는 것이 편하다.	3.63	.97	-.409	-.140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재밌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3.34	1.08	-.128	-.550
정서적 유동성	나는 머리를 사용하는 놀이나 아이디어 게임을 좋아한다.	3.46	1.10	-.233	-.609
	나의 상상력은 풍부하다.	3.60	.97	-.191	-.352
	나는 내가 다른 성격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을 좋아한다.	3.54	1.05	-.341	-.432
유머 관점	행복할 때, 나는 노래하거나 흥얼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3.84	.99	-.532	-.251
	나는 자주 미소 짓거나 웃는다.	3.92	.89	-.407	-.357
	내가 기분이 좋거나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차린다.	3.83	.98	-.493	-.305
유머 관점	대부분 상황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남에게 자유롭게 드러내는 편이다.	3.50	1.05	-.296	-.439
	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3.19	1.11	-.071	-.599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기거나 농담거리를 찾는 편이다.	3.17	1.11	-.097	-.587
유머 관점	나는 대부분 상황에서 유머러스하거나 코믹한 것을 찾을 수 있다.	3.27	1.06	-.087	-.461
	나는 웃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3.66	1.01	-.385	-.312

표 3. 놀이성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유머	신체적적극	정서적유동성	정신적자발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기거나 농담거리를 찾는 편이다	.843	.150	.091	.128
나는 대부분 상황에서 유머러스하거나 코믹한 것을 찾을 수 있다	.825	.172	.136	.224
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778	.223	.268	.019
나는 웃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721	.199	.271	.173
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한다	.620	.337	.307	.241
나는 딴 사람들에게 농담하는 것이 편하다	.603	.272	.275	.256
나는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193	.894	.106	.120
나는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에 동기부여 되고 자극 받는다	.307	.817	.033	.130
나는 친구들과 과격한 육체적 놀이하기를 좋아한다	.229	.802	.047	.132
나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138	.721	.380	.080
내가 기분이 좋거나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쉽게 알아차린다	.268	.064	.735	.083
나는 자주 미소 짓거나 웃는다	.214	.109	.729	.282
행복할 때, 나는 노래하거나 흥얼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082	.132	.635	.394
대부분 상황에, 나는 나의 감정을 남에게 자유롭게 드러내는 편이다	.388	.176	.596	-.080
나는 머리를 사용하는 놀이나 아이디어 게임을 좋아한다	.113	.141	-.007	.735
나의 상상력은 풍부하다	.269	.095	.217	.675
나는 내가 다른 성격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을 좋아한다	.137	.107	.364	.589
고유값	7.156	1.754	1.366	1.012
분산	42.096	10.320	8.034	5.950
누적분산	42.096	52.416	60.450	66.400
Cronbach's 알파	.905	.879	.747	.603

KMO 측도=.907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16963.043, 자유도=136, 유의확률=.000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원칙도와 달리 중복요인량을 나타낸 사회적 참여 2문항(‘잘 노는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다(영문 원칙도, By being playful it is easier to get along with people)’, ‘나는 사람들과 놀고 장난치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영문 원칙도, I like to interact with people in a playful way)’)과 정신적 자발성 1문항(‘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재밌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영문 원칙도, I like to imagine myself and other people in funny situations)’)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삭제되지 않은 사회적 참여 요인 2문항은 유머관점 요인으로 요인화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원칙도의 유머관점(Humorous Perspective)요인은 유머(Humor)요인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칙도의 5개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는 4개 요인(신체적 적극성, Physical Animation; 정신적 자발성, Mental Spontaneity; 정서적 유동성, Emotional Fluidity; 유머, Humor) 17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놀이성 17문항의 요인적재량은 .589에서 .843으로 나타났으며, KMO값은 .90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 있어서 Cronbach's α 값 .60 이상의 적합한 신뢰도 값을 나타냈다(Nunnally, 1978). 놀이성 문항의 신뢰도와 요인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개방성(5문항)과 외향성 문항(5문항)은 김지영(2011)이 Lounsbury et al. (2003)에 의하여 개발된 문항을 기반으로 변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개방성과 외향성은

각각 1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값은 외향성요인 .813에서 .879, 개방성요인 .571에서 .782로 나타났으며, 개방성문항과 외향성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KMO 값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값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과 외향성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75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신뢰도 값을 나타냈다(Nunnally, 1978). 개방성과 외향성 문항의 요인분석결과와 신뢰도분석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있다.

표 4. 외향성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외향성
나는 모임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879
나는 낯선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866
나는 사교적이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866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831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 않다	.813
고유값	3.624
분산	72.485
누적분산	72.485
Cronbach's 알파	.905
KMO 측도=.904	
Bartlett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5843.983 자유도=10, 유의확률=.000	

표 5. 개방성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개방성
나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782
나는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769
학업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흥미롭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찾아보는 편이다.	.766
나는 다른 나라나 지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704
공부는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71
고유값	3.624
분산	52.250
누적분산	52.250
Cronbach's 알파	.756
KMO 측도=.795	
Bartlett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2298.596 자유도=10, 유의확률=.000	

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 요인의 요인부하량과 적합도를 살펴본다.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정과 절대적합지수인 RMSEA(.08이하 적합), 증분적합지수인 CFI(.90이상 적합), 그리고 간접적합지수인 IFI(.90이상 적합)를 사용하였다(김계수, 2007).

번안된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 초기 5 요인 20문항(초기 번안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 요인 17문항(요인분석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오차값과 표준오차 값의 불안정성을 확인하였으나 오차수준이 특이하게 불안정한 문항은 발견되지 않아, 개념적으로 불분명한 유머요인에 포함된 사회적 관계 2문항('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한다(영문 원척도, I like to make people laugh)', 나는 딴 사람들에게 농담하는 것이 편하다(영문 원척도, I feel comfortable joking around with others'))을 삭제한 4 요인 15문항(최종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요인 15문항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IFI	CFI	RMSEA
5요인 20문항 (초기 번안 모델)	3970.92	160	.873	.872	.095
4요인 17문항 (요인분석 모델)	2032.02	113	.890	.889	.080
4요인 15문항 (최종 모델)	1360.83	84	.910	.910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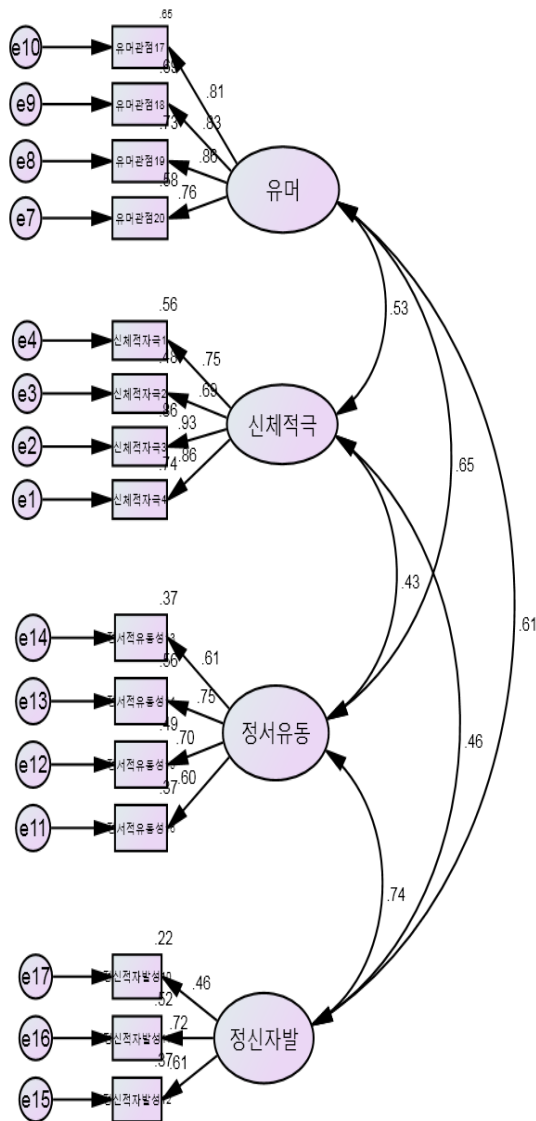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4. 상관분석 및 공인타당도

개방성과 외향성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모든 하위요소는 유의수준 .01에서 개방성, 외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 변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분석 값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및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유머	신체	정서	정신	개방성	외향성
유머	1	.506**	.554**	.446**	.375**	.585**
신체		1	.403**	.374**	.322**	.488**
정서			1	.515**	.417**	.511**
정신				1	.549**	.412**
개방성					1	.428**
외향성						1
M	3.32	3.44	3.77	3.54	3.50	3.31
SD	.93	.95	.74	.78	.74	.91

**p < .001

표 8. AVE 계수

요인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AVE
신체 자극 4	.861	.319	.609
신체 자극 3	.929	.169	
신체 자극 2	.689	.593	
신체 자극 1	.750	.618	
유머20	.758	.436	.631
유머19	.857	.300	
유머18	.831	.383	
유머17	.807	.435	
정서 유동 16	.604	.303	
정서 유동 15	.702	.298	.562
정서 유동 14	.748	.257	
정서 유동 13	.608	.530	
정신 자발 12	.606	.459	
정신 자발 11	.721	.256	.534
정신 자발 10	.464	.273	

5. 개념타당도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개념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수와 잠재요인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표 8>에 제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평균추출지수(AVE) 값은 신체적자극성 .609, 유머 .631, 정서적유동성 .562, 정신적자발성 .534로 나타났다. Fornell과 Larcker(1981)이 제시한 기준 값 .50 이상을 초과하여 적합한 개념타당도가 확인되었다.

IV. 논의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그들의 여가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놀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청소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척도의 부재로 인해 국내 청소년의 놀이성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다양한 후속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Staempfli(2007)가 개발한 청소년 놀이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이후 Staempfli가 제시한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5개의 요인(신체적 적극성, Physical Animation; 사회적 참여, Social Engagement; 정신적 자발성, Mental Spontaneity; 정서적 유동성, Emotional Fluidity; 유머관점, Humorous Perspective) 20문항에 대하여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는 4개 요인(신체적 적극성, Physical Animation; 정신적 자발성, Mental Spontaneity; 정서적 유동성, Emotional Fluidity; 유머, Humor) 17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 요인 15문항의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가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원척도가 발표된 2007년과 달리 현시대에 더 대중적이며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로 부상된 핸드폰 사용과 이로 인한 국내 청소년들의 개인주의가 반영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머 요인은 성인의 놀이성 하위변인을 밝힌 양은실(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Barnett(1991)과 Liberman(1977)의 연구를 토대로 취학 전 유아의 놀이성 평정

도구(유애열, 1994)에서 밝히 유머감과 유사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유머감각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놀이성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적 자발성 요인은 초등학교의 놀이성 연구(최태산, 최명성, 조미정, 2008)에서 밝혀진 기발성 요인과 유사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재치 있고 다양한 상상력을 즐기는 놀이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놀이성은 성인의 놀이성 연구(양은실, 1998)에서도 보고되는 것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중요한 놀이성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정서적 유동성 요인은 놀이를 좋아하는 유아에 대한 관찰연구(김영희, 2002)에서 보고된 정서적 놀이성 요소와 유사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성인들에게서는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 놀이성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최태산, 최명성, 조미정, 2008). 다시 말해, 놀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아동과 청소년은 빈번하게 웃고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개인적 특질을 기반으로 성인의 놀이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양한 책무와 일과 관계된 사회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성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되지 않은 웃음과 표정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정서와 관련된 놀이성 요소는 연령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참여 요인은 적절한 요인적재치와 구성타당도를 보여 주지 않아 최종 문항에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김영희, 1996)을 대상으로 한 놀이성 연구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놀이성 연구(최태산, 최명성, 조미정, 2008)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신체적 적극성 놀이성 요소는

성인의 놀이성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요소로서 놀이성이 연령별에 따라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생각되며, 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각 연령층의 놀이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하위요인과 외향성요인, 개방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모든 하위 요인은 개방성과 외향성 요인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김경은, 2014; 한지현, 이진숙, 2015)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한국형 청소년 놀이성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행동특성 및 심리 변인과 청소년 놀이성 변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은(2014).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5요인 및 놀이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1(1), 1-17.
-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영희(1996). 아동의 놀이성군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2002). 놀이를 잘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6(1), 3-15.
- 김지영(2011). 외향성과 개방성 성격특성에 따른 의복선택기준과 선호의복이미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4), 139-151.
- 김경은(2014).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5요인 및 놀이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1(1), 1-17.
- 양은실(1998). 놀이치료자의 놀이성과 경력, 태도, 지식, 기술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이순행, 이희연, 정미라(2018). 한국판 성인놀이성 척도(K-APTS) 타당화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2), 397-425.
- 이훈(2009). 놀이와 관광의 새로운 접근. *한국관광학회(편저). 55인의 관광학 전문인이 집필한 관광학총론*, 서울: 백산출판사, 785-789.
- 이훈, 조희범, 이영진(2010). 성인의 놀이성 지표 개발. *관광학연구*, 34(9), 165-188.
- 장해순, 강태완(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104-130.
- 정수인, 안현의(2019). 한국판 성인용 놀이성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4), 353-375.
- 최문형(2009). 체육수업에서 아동의 기본적 심리욕구 척도의 개발과 타당성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87-100.
- 최봉암, 최재일, 이준무(2014). 골프선수용 여가라이프스나일척도의 타당화 검증. *체육과학회지*, 23(1), 61-75.
- 최장호, 박영숙(2003).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1), 347-356.
- 최태산, 최명선, 조미정(2008). 초등학생의 놀이성 척도 개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35-52.
- 한지현, 이진숙 (2015). 어머니의 5요인 성격특성과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5), 173-188.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and Culture*, 4(6), 51-74.

- Barnett, L. A.(1998). Characterizing playfulness: Correlates with individual attributes and personality traits. *Play & Culture, 4*, 371–393.
- Barnett, L. A. (2007). The nature of playful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43*(4), 949–958.
- Bozionelos, N., & Bozionelos, G.(1999).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with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749–760.
-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Perennial.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 83–103.
- Glynn, M. A. & Webster, J. (1993). Refining the nomological the of the adult playfulness scale personality, motivational and attitudinal correlates for highly intelligent adults. *Psychological Report, 72*, 1023–1026.
- International Test Commission. (2010). International test commission Guidelines for translating and adapting tests. Retrieved from <http://www.intestcom.org>.
- Liberman, J. N. (1977).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Lounsbury, J. W., Tatum, H., Gibson, L. W., Park, S. H., Sundstrim, E. D., Hamrick, F. L., & Wilburn, D. (2003). The development of a Big Five adolescent personality scale.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21*, 111–133.
- Millar, S. (1974). *The Psychology of play*. New York: Aronson.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ition, McGraw–Hill, New York.
- Solnit A. J. (1998). Beyond play and playfulness.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53*(1), 102–110.
- Vallerand, R. J. (1989). Vers une methodologie devalidation trans–culturelle dequestionnaires psychol–ogiques: Implications pour la recherche en langue francaise [Toward a methodology of cross–cultural validation of psychological questionnaires: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French]. *Psychologie Canadienne, 30*, 662–680.
- Staempfli, M. B. (2007). Adolescent playfulness, stress perception, coping and well be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3), 393–412.